“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여름공동체 생활 때 모아주신 물질의 나눔을 민들레 공동체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 멋쟁이학교 개강여행이 25일(월)~28일(목)까지 지리산에서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 학년별여행이 26일(화)~28일(목)까지 서울과 전주에서 있습니다.
- 성서일기 본문이 오늘부터 신명기로 바뀝니다.
- 지역별사랑방 후반기 방모임이 이번 주간에 시작합니다. 방모임에 힘써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정재훈 목사 · 장영미(생일) 전도사 가정
홍삼성 장로 · 임명숙 권사 가정 (감사)
임상희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정흠 집사 (생일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34 호
2025년 8월 2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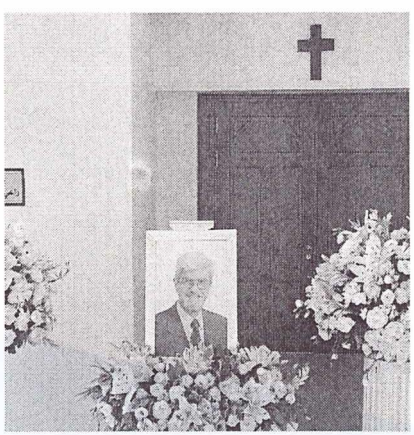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8월의 J국 소식

샬롬~ 무더위와 장마 가득한 여름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저희 지역도 4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계속되어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더위가 풀리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8월 J국 소식 나눕니다.

1. 현지 동역자 M형제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 상황을 살펴보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무더위가 지속되는 날씨에서도 하루 2시간만 전기가 공급된다 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교회와 크리스천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진1은 그가 보내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땅의 영적 부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저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아버님같이 의지했던 제리야스 장로님이 82세의 일기로 8/15일(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금 편찮으셨지만 얼마 전까지 예배 참석하시고 함께 교제했는데... 소중한 분과 작별하는 제 마음에도 슬픔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뿐

입니다. 예수님 계시기에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인줄 믿습니다. 소중한 믿음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 이곳에서도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우리네 태양초를 연상케 합니다. 아랍음식을 맛나게 하는 매운 소스 '파타'를 만드는 아낙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날씨가 더우니 매움도 더할듯합니다. 이 여름, 우리의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잘 익어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4. 무슬림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형제자매들의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러내 모임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가정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개종자들의 심령에 예수복음이 든든히 세워져가고, 저희 사역자들이 지혜롭게 섬길 수 있길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임** 목사

한주간의 말씀

"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 있는 귀한 돌입니다. "
<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439 208 / 542
기도 :
성경 : 누가복음 23장
제목 :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다

1-25 예수께서 사형판결을 받으시다.
해석: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적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26-43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다.
해석: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적용: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한정짓지 말자.

44-56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묻히시다.
해석: 예수님의 참사람으로서 육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적용: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다가오심에 감사하자.

여름방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보 글을 쓰게 된 멋쟁이학교 2학년 최시현입니다.

이번 주보글로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냈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을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물론 숙제가 그닥 많지 않아서 더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학을 한 후에도 멋쟁이학교 형, 누나, 그리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중간 중간 만나며 어떻게 지내는 지도 들어보고 앞으로의 2학기를 기대하는 시간도 가지었습니다. 같이 만나 볼링도 치고 축구도 하는 등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 가지 특별했던 점은 이번 방학에 유도를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7월 한달간 주 5일 유도관에 다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어서 정말 즐겁게 다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다녀왔었습니다. 진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 전날에 약속을 잡고 만나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거의 70km를 탔는데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멋쟁이학교는 개학을 합니다. 바로 지리산에 가는데 작년에 날씨 때문에 하산을 했었어서 이번에는 꼭 정상에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멋쟁이학교의 2학기와 지리산을 위해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꿈사랑방 최시현 학생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118 : 1-4	인도자
*예배의 찬송	32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누가복음 6 : 3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7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베드로전서 2 : 4-10	설교자
성가대 찬양	180	비움사랑방
설 교	"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영광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31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10(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이충환 최연우 / 봉헌위원 : 박영선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영광

모퉁이의 머릿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그것도 모퉁이 돌로 비유하였습니다. 모퉁이 돌은 벽체를 올릴 때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외관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기도 하고 두 벽체의 하중을 버텨내야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한 모퉁이 돌 위에는 절대로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 아름다움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 있고 형태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외형은 추하였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예지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목요일에 개학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꾸러기들이 아침부터 신이 난 얼굴로 방학동안 지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쁩니다. 오후에는 각자 가지고 온 사진과 작품들을 소개하며 서로 방학동안 지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꾸러기들은 방학동안 식구들이랑 산책도 하고 친척을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고 물놀이도 하고 친구랑 박물관에 가서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그림도 그렸답니다. 종이접기랑 피아노를 배운 친구도 있고 꾸러기에서 외운 말씀으로 글공부를 한 친구도 있습니다. 가위질을 하고 그림을 그려 모두에게 줄 편지를 만들어 와서 나누어준 친구도 있습니다.

날이 더워 밖에서 놀지는 못했지만 밭에 물을 주고 가지도 땄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계절이 바뀌어 새로 피어난 꽃들이랑 쑥 자란 작물들이랑 거미랑 무당벌레를 보았습니다. 자연스레 그림을 그리고 책을 보고 줄넘기를 하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만들고 만든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하며 함께 놉니다.

방학동안 집에 있을 때도 즐거웠다고 하고 개학이라 다시 꾸러기에 모여 노는 것도 즐거운 꾸러기들입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7월 16일부터 시작됐던 여름방학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목요일에 2학기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좀 더 크고, 조금 까매지고, 좀 머리가 길어지고 등등 저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잘 지냈음을 달라진 외모로 보여주며 수줍고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인사와 여는 모임이 끝나면 먼저 반별로 모여서 그 간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 방학 숙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반 담임 선생님 앞에서 어떤 친구는 방학 숙제를 모두 다 해서 의기양양하고, 어떤 친구는 괜스레 미안해하는 시간이지요.

반별 모임이 끝난 후에는 바로 학년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년별 여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한 여행지와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세부 조율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2학기 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표심이 이리 저리로 쏠리는 접전 끝에 박윤아 회장, 최진용 총무, 최리야 서기가 뽑혔습니다. 임원들이 공약대로 이번 학기 어린이학교를 잘 이끌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2박 3일 간 어린이학교는 학년별 여행을 갑니다. 같은 학년끼리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될 텐데 특히 날씨와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2학기가 곧 시작합니다. 멋쟁이학교는 2학기를 지리산 종주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종주코스 약 25km의 거리는 도보여행에 비하면 하룻길에 불과하지만, 산에서는 훨씬 밀도 높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차량 지원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편하게 씻긴 커녕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맞으며 걸어가야 하는 여행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해주는 특별한 때입니다. 더구나 멋쟁이들에게는 작년과 재작년에 태풍 시기와 겹쳐서 도중에 하산했던 아쉬운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더욱 마음가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예비소집이 있었습니다. 방학을 마무리하며 다들 반갑게 재회하고, 근황을 나누고, 우리가 생활할 곳들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이번에 새롭게 생활하게 된 4명의 편입생도 함께 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쌓이다보면 여느 멋쟁이와도 같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멋쟁이들은 모두 힘을 합쳐 지리산 여행을 떠납니다. 안전과 뜻깊은 경험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방학숙제

어린이학교의 2학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개학 첫날 우리 반 친구들의 숙제 검사를 했다.

어린이학교 숙제는 공통 과제가 있고, 개별 과제도 있다. 공통 과제에는 일기, 연산, 독서가 기본이고 그 외에 운동이나 3학년 이상의 친구들이 해야 하는 영어 숙제도 있다.

개별 과제는 친구들의 바람이나 특성을 고려한 숙제들이다.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 이번에 냈던 숙제를 보면) '검정고시 준비 잘하기'라든지 '친구들과 만나서 네 컷 사진 찍기'도 있고, '자신의 방 스스로 정리하기', '젓가락질 연습하기', '가족여행 책 만들기'나 '가족들의 시식 평가가 있는 나만의 요리법 모음집 만들기' 같은 숙제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반의 특별한 공통 과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킹 오브 킹스>를 영화관에서 관람하고 소감을 일기에 쓰는 것이었다. 개봉일이 방학 전이었다면 단체 관람을 했을 텐데 방학 후에 개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한 친구에게 대략 여섯 개 정도씩 숙제가 있었다.

숙제 검사를 해보니 개학 전 날 정말 바빴겠구나 싶은 친구도 보이고, 상관없이 설렁 설렁 해온 친구도 있고, 마음먹고 아주 열심히 해온 친구도 있었다. 이 친구는 아마도 며칠 후에 방학과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방학 동안에는 나에게도 내가 내준 숙제가 있었다. 숙제도 내가 내고 평가도 내가 하는 숙제. 매일 운동하기, 보고 싶은 사람 만나기, 드라마 한 편(12부작) 보기... 영화 몇 편 보기... 책 몇 권 읽기, 내과 가서 내시경 받고 치과 가서 스케일링 받기 등등.

내 방학 숙제는 '선생님도 숙제 있어~ (너희만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마음도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필요한 '점검과 충전'의 숙제들이었다.

이번 방학 동안 내 숙제를 하고 나니 일단 좀 후련한 것들이 있고, 다 해내지 못한 숙제들은 그래도 아예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 이것이 숙제의 순기능! 그런 의미에서 다음 방학에도 학생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좋은 숙제를 내보아야겠다.

그루터기사랑방 전선희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281장, 288장
성 경 : 전도서 3장 16절~22절
말 씀 : 받은 몫을 즐거워하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물적피해, 기후 환경 변화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하고 있는 전쟁들이 그치고 이 과정에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한마당잔치를 위해>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경주에서 진행 중인 한공협 한마당 잔치가 끝까지 은혜롭게 마치게 해 주시고 참석한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더운 날씨 속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2) 개학 준비 중인 공동체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 생활공동체 소식 >

8/18(월)-20(수)까지 한공협 한마당으로 사랑방의 몇몇 식구들은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현 사회와 교회, 교육 등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유익하고, 도전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서 공동체가 다시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후반기도 모두 한 마음되어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리라 믿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